

특별 논문

1

기독교소설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A study on Christian Culture appeared in Okhokion

김경완(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2. 한국 개화기소설과 기독교 수용
3. <옥호괴연>의 창작배경과 내용
4.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5. 결론

Abstract

by Kyung-Wan Kim

Okhokiyon is a new stle novel in the flowering time that saying happening strange relation until marriage of (a head of village) Mr. Ju' s son, Makdongi and Yu tong-jeong' s daughter, Keum-ju.

There is a view of the Christian world of repentance, forgiveness and love in space among lines spreading out a course of curious meeting, trouble and compromise between a hero and a heroine.

There are An kuk-sun' s Keumsu-heuilok, Kim pil-su' s Kyeongsejong, Lee sang-hyup' s Nunmul, Choi Byeong heons' Sungsan-myeongkyeong, a woman Bae ui-lyang' s Koyeongkyujeon and BuBu of Mobon and etc in works containing a view of the Christian as a new stle novel like Okhokiyon.

Specially Bakyeon Pokpo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Okhokiyon in that it have a same subject of discord, penitence and pardon in which a hero and a heroine have a experience.

The background of activity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in the opening part of Okhokiyon is a place for Deungbulnori in April 8 and this novel have christian culture in center of the happy ending which the characters show in the end.

This shows that the novel, Okhokiyon makes a Korea cultural heritage be harmony with western christian civilization, has a new mind to develop the spirit of the age.

Character of the works such as this, has universality of the times literature in the flowering time in process to move from classical literature toward current literature

Sentence form of Okhokiyon is polished style of a story of ancient times but because it has also spacing word, dialogue style, life based on Christian culture,

it is known that this novel is Korea novel of the flowering time.

Christian Culture appeared in Okhokiyon contains instruction of western christian culture, christian marriage culture which is center of Creator, God, and Christian culture through the medium of dialogue in Keum-ju's human relation and thinking appears.

Makdongi's negative figure and change of it and appearance of fact as it is, help build the reality of novel.

Feature of this novel is that it does not only deal with a political idea and shock of western civilization as one of material but also focus on internal change of a figure.

Many other works treats severe subject about issue of nation and a people but this novel concern about mistake of a individual that sometimes pass over or regard it as unimportant and, concern about repentance through the view of the Christian world and writing of happy ending unlike other works.

A perfect hero or heroine very often comes on stage on classical literature. But Makdongi, a hero in this novel, is a very defective criminal. This novel embosses human existence with course that he repent and change.

Okhokiyon express subject of repentance, pardon, meeting by a hero and heroine in God, the Creator with acceptance and integration of western christian culture, and have a important literary meaning because it is known to many people by publishing this great impressive story.

I wish I help a little construct literary sense of literature in the flowering time, the turning point of korea literature in 'Study on Christian Culture appeared in Okhokiyon'.

기독교소설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A study on Christian Culture appeared in Okhokion

김경완(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옥호괴연〉(玉壺奇緣)은 1912년에 쓰여진 한국 개화기¹의 신소설이다. 표지 첫줄에 '新小説'이라고 쓰여 있고, 다음 줄에 큰글씨로 '玉壺奇緣'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漢字 다음 줄에는 한글 궁서로 '옥호괴연'이라고 병기되어 있다. 그리고 비교적 큰 화폭의 호로 병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다. 본문의 첫쪽에는 한글제목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괄호 안에 漢字 제목을 병기하고 있다. 각면 16행, 각행 32자의 세로쓰기 활자체이며, 모두 5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의 글씨는 가로쓰기이며, 본문의 내용은 세로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13년에 나온 동양서원 발행 소설총서 제2집에도 '玉壺奇緣'이란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 제2집에 함께 게재된 다른 작품들은 〈귀의 성(상·하)〉, 〈牧丹花〉, 〈驅馬劍〉, 〈秋風感樹錄〉, 〈萬人傘

1. 〈옥호괴연〉, 普及書, 191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 開化期文學 叢書『新小説·續索(譯)小説』10, 亞細亞文化社, 1978. 221(1)~273(53)면에 게재. 작품 인용시에는 작품명과 작품내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 개화기의 기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종래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가던 시기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갑오경장이 일어난 1894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로 규정하기로 한다.

), 〈行樂圖〉, 〈현미경〉, 〈비행선〉, 〈金指環〉 등이 있다.³ 〈옥호괴연〉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에는 이 작품의 특징으로 이탈리아라는 낯선 나라를 작품 배경에 도입하여 그 나라의 풍물, 역사, 선진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개화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일종의 계몽소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인공 주막동의 경우 반 개화적 인물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난 다음 급진적으로 개화인물로 전환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이탈리아 여행 이전의 행동과는 부자연스럽지만 민본사상, 개혁사상, 민주정치, 허례허식의 배척 등을 본받고 배우려는 점에서 모방적 개화형의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⁵ 여기서 민본사상이나 개혁사상, 민주정치, 허례허식의 배척 등에 대한 이해는 천부인권사상이 개화기문학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서구 기독교문화⁶와의 접촉을 들 수 있다. 기독교문화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를 말한다. 기독교문화는 기독교신앙이 표현된 문화이며, 영적이며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 내면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문화의 범주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회 건물이나, 기독교 유적지와 함께 기독교 역사가 주는 교훈과 눈에 보이는 기독교적 삶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세계도 아우르는 것이다. 〈옥호괴연〉은 한국의 전통문화인 사월초과일 등불놀이이라는 절기 행사를 배경으로 하며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세계관이 들어와 새로운 형태의 한국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

3. 김태준 저·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29면.

4. 崔雲植, “옥호괴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8~99면.

5. 황정현, 『新小說 研究』, 집문당, 1997. 262면.

6.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되고, 공유되며, 전달되는 행동이나 생활 양식의 모든 것이다. 언어와 풍습, 그리고 도덕과 종교 및 학문, 예술과 온갖 제도 등을 통칭한다. 기독교 문화란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축된 문화다.

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의 개화기소설과 기독교 수용에 대해 언급하고, 〈옥호기연〉의 창작 배경과 지은이, 그리고 작품의 내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문화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해석방법론과 분석자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 발표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개화기소설 〈옥호기연〉을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수행하게 됨을 밝혀둔다.

2. 한국 개화기소설과 기독교 수용

개화기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만나고 있는 시기의 문학이다. 한국문학이라는 한 흐름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함께 이해하게 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⁷⁾한데, 개화기의 작품은 이와 같은 방법의 모색에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소설은 밝혀진 것만 120여편이 넘으며,⁸⁾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확인된 것이 20여편⁹⁾이다.

개화기의 신소설이 다루는 주제는 주로 자유결혼관, 남녀평등관, 향학과 교육열 등이며, 문체상 특징으로는 탈운문과 언문일치, 탈한문투, 고사와 격언 등의 지양, 과장과 비유의 구투 탈피, 과거지사 회고형의 탈피

7. 명순, 「한국고전 산문교육의 문제점」, 『한남교육연구』 제4집, 한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6. 227면.

8. 소재영·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한국 기독교문학 총서 1,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7면.

9. 〈경세종〉, 〈고목화〉, 〈고영규전〉, 〈금수회의록〉, 〈눈물〉, 〈다정다한〉, 〈두견성〉, 〈명월정〉, 〈모란병〉, 〈몽조〉, 〈박연폭포〉, 〈부부의 모본〉, 〈성산명경〉, 〈쌍옥적〉, 〈옥호기연〉, 〈완월루〉, 〈원양도〉, 〈월하의 자백〉, 〈은세계〉, 〈재봉춘〉 등 (작품 가나다순 배열함).

등이다.¹⁰ 개화기 신소설의 각 작품은 前代소설의 연속에 그치지 않고 前代소설의 연속이면서 극복인 것이다.¹¹ 최초의 번역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1882년 奉天에서 간행된¹² 이래로 한국문화 속에 성경이 번역되어 통용되고, 찬송가가 간행되어 불리워지면서 우리 어문학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온다.

성경과 찬송가는 문자의 보급과 표준화, 그리고 문자해독률의 상승에 기여했다. 문맹자도 성경을 배워 읽으며 글을 익히고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게 된다. 찬송가의 가사가 한글로 번역되어 역시 한글보급에 일익을 담당한다. 아울러 찬송가사의 운율을 통해 4·4조 시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산문의 향상에, 찬송가는 운문의 발전에 공헌한다.

특히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영혼구원,¹³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용어와 의미는 기독교를 수용한 지은이의 창작의도에 따라 개화기소설에도 쉽게 표현될 수 있었다.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는 몇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약춘사의 〈다정다한〉(1907년)은 애국지사가 고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역경을 극복하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반야의 〈몽조〉(1907년)는 주인공이 개인 문제로 절망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에로의 소망을 그려내고 있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년)은 아홉동물을 등장시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동물의 성격을 의인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의 정치, 사회,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김필수의 〈경세중〉(1908년)은 열다섯동물을 등장시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개인의 죄성을 통렬히 드러내며

10. 김동욱·이재선 編, 『韓國小說史』, (주) 現代文學, 1992(2). 377~392면.

11. 조동일,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7). 106면.

12. 崔泰榮, 「基督敎의 神名考」, 『국어국문학』124, 국어국문학회, 1999. 2~3면.

13. 줄저, 『韓國小說의 基督敎 受容과 文學的 表現』, 대학사, 2000. 40~41면.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 최병헌의 〈성산명경〉(1911년)은 주인공이 유불선 3교의 지도자들과 심도있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며 올바른 구원의 길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배위량부인의 〈고영규전〉(1911년)은 인간의 실존이 죄로 말미암아 유리방향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배위량부인의 〈부부의 모본〉(1911년)은 두 주인공이 인내와 대화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체험적 진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상춘의 〈박연폭포〉(1913년)는 주인공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기독교적 사랑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인을 뛰어넘는 독특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¹⁴

〈옥호괴연〉은 〈성산명경〉, 〈고영규전〉, 〈부부의 모본〉이 나온 1911년과 〈박연폭포〉가 나온 1913년 사이인 1912년에 출간된 개화기의 기독교소설이다.

3. 〈옥호괴연〉의 창작배경과 내용

1) 창작배경

1910년은 정치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병된 해다. 따라서 〈옥호괴연〉이 출간된 1912년은 민족의 수난기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14. 줄저, 「개화기소설의 주인공과 기독교세계관」, 『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도서출판 月印, 2000. 172~173면.

가 강행되었다. 교육은 민족의식을 깨우쳐준다하여 통감부와 총독부의 교육령에 의해 탄압을 받던 시기다. 언론과 사상도 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다.¹⁵ 일제에 의한 파행적 자본주의의 전개 속에서 활자본 소설들이 상업성을 가지고 출판된다. 1910년대에 주도적으로 등장했던 활자본 고소설이 1912~1918년에 200종 가량 출판되기도 했다.¹⁶ 아울러 많은 양의 활자본 신소설들이 출간되었다.

<옥호괴연>이 출간된 1912년에 나온 신소설 작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비행선>(김교제, 동양서원), <황금탑>(김용준, 보급서관), <만인산>(동양서원), <산천초목>(유일서관), <강상기우>(이해조, 동양서원), <고목화>(이해조, 동양서원), <지환당>(보급서관), <행락도>(동양서원), <비행선>(김교제, 동양서원), <현미경>(김교제, 동양서원), <화의 혈>(이해조, 보급서관), <강상촌>(청초당, 박학서원), <모란봉>(이인직, 동양서원), <탄금대>(이해조, 신구서림) 등이다. 1912년에 일간신문과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통해 나온 서사문학작품은 모두 103편에 이른다.¹⁷

<옥호괴연>이 나온 1912년은 정치 경제적으로 일제치하의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설을 비롯한 서사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던 때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은이에 대하여

15. 洪以燮, 「日帝(=植民地)時代の 歷史的 性格」, 韓國經濟史學會 編, 『韓國史 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 215~227면.

16. 權純肯, 『活字本 古小說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168면.

17.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 505~509면.

〈옥호괴연〉의 판권에는 인쇄일을 ‘明治四十五年 一月 十五日’로, 발행일을 ‘明治四十五年 一月 二十日’로 표기하고 있다. 명치 45년은 서력 1912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작 겸 발행자로 ‘閔濬鎬’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인쇄자는 ‘鄭昌鎬’이며, 인쇄소는 ‘普明社’다. 발매소는 普及書, 東洋書院, 廣學書 등 세곳으로 표기되어 있다.

저작 겸 발행자인 민준호는 생몰년 미상이며, 출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 기록에 따르면 동양서원의 주인으로 1910년대에 종교서적과 문학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했다고 한다. 경성조선인서적조합(1911년 4월 20일 발족)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그는 ‘동양서원 소설구락부’라는 이름으로 〈목단화〉, 〈빈상설〉, 〈치약산〉, 〈귀의성〉, 〈원앙도〉, 〈고목화〉, 〈재봉춘〉, 〈옥호괴연〉 등의 소설총서를 발간하여 발매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전집으로 보기도 한다.

그가 발간한 책 가운데 〈추풍감슈록〉, 〈횡낙도〉 등이 저작 겸 발행자로 되어 있어서 신소설 작가로 오인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추풍감슈록〉은 이해조의 작품이며, 판권의 이전에 따라 발행인을 저작 겸 발행자로 기명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¹⁸ 이 당시에 동양서원에서 나온 〈동정추월〉도 민준호가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검증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옥호괴연〉의 지은이를 민준호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작자 미상으로 두고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긴다. 여러 작품 중에서 〈마상루〉는 책 안에 지은이가 민준호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민준호가 책을 발행하면서 직접 작품을 썼던 것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8. 尹明求, “민준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97~798면.

3) <옥호괴연>의 내용

1912년에 민준호에 의해 발행된 <옥호괴연>의 내용을 작품 전개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개 항목의 줄거리로 정리할 수 있다.

- (1) 류통정이 딸 금주와 함께 사월팔일 구경을 나선다.
- (2) 구경을 파하고 귀가하는 길에 막동이와 건달들이 금주를 납치한다.
- (3) 막동이가 자기집에 데려온 금주를 두차례에 걸쳐 겁간하려든다.
- (4) 금주는 죽을 결심으로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
- (5) 막동이가 잠시 방을 나간 사이 금주는 자결하려 칼을 찾다가 도적맞았던 옥무늬 호로병을 손에 쥘다.
- (6) 막동이가 별 수 없이 날이 새기 전에 금주의 얼굴을 가리고 엮어다가 풀어준다.
- (7) 류통정과 부인 현씨가 통탄하던중 금주의 귀가로 세 식구가 서로 붙들고 울기만 한다.
- (8) 금주가 비취옥 호로병을 꺼내 보이자 류통정이 지난번 도적맞았던 것임을 확인한다.
- (9) 건달들이 다시 한 여자를 막동이에게 데려다주자 두어번 거절하다가 막동이에게 몸을 허락한다.
- (10) 막동이가 백년동락을 언약한 뒤 건달 친구들에게 한턱 내고 와보니 여자가 돈이 될 것은 모두 가지고 잠적한 상태다.
- (11) 잠시 후 순검들이 들이 닥치자 건달들은 모두 달아난다.
- (12) 막동이가 순검에게 잡혀 남서로 가니 고발자가 친정에 가던 자기 아내를 겁육한 것에 대해 징치해달라고 한다.
- (13) 막동이는 자기가 도적맞은 일은 말도 못하고 감옥소에 넘겨지기에 앞서 구류된다.

- (14) 건달들이 남서로 가서 벽을 뚫고 막둥이를 피신시킨다.
- (15) 막둥이는 아버지 류감리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고 경인철도로 인천에 가서 건달들과 구라파행 운선을 탄다.
- (16) 조선과 같은 반도국인 이태리에 도착하여 이름난 산천과 경개있는 성지를 구경한다.
- (17) 로마시대가 남긴 건축물과 제도를 보며 감탄한다.
- (18) 옛날 교왕(敎王)이 열국 왕들을 통제하며 교만히 행하는 가운데 헨리 4세가 굴욕당했던 이야기를 알게 된다.
- (19) 교왕이 교만하고 음란함이 다하자 뜻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왕의 권세는 땅에 떨어진다는 교훈을 배운다.
- (20) 막둥이는 로마역사의 교훈을 통해 자신이 술을 좋아하고 색을 탐했던 일에 대해 통회한다.
- (21) 막둥이는 어렵게 성장한 사람 중에서 외교가나 학사 박사가 나온 예들을 살펴며 자신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함부로 살았던 것을 뉘우친다.
- (22) 막둥이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부당한 일만 일삼으면 먼지나 쓰레기와 같아 하늘이 품부하신 몸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 (23) 막둥이는 한 도시에서 의회의 규모와 의원의 기개를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는다.
- (24) 막둥이는 나라에서 사면이 이루어졌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으니 귀국하라는 부친의 편지를 읽은 뒤, 건달들과 함께 귀국한다.
- (25) 그동안 주감리는 중매아비를 통해 류통정의 딸과 아들을 혼인시키기로 약조한다.
- (26) 류통정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현씨부인과 금주는 슬퍼하다가 장사를 지낸 뒤 집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 (27) 주감리집 하인이 현씨부인과 금주에게 와서 주감리집에서 방을 내주

졌다는 소식을 전한다.

- (28) 현씨부인과 금주가 주감리집에서 내주는 방으로 이사를 한다.
- (29) 금주가 방의 모양이 익숙한 곳으로 사월팔일밤에 곤욕을 당했던 곳을 기억하고는 나가자고 한다.
- (30) 현씨부인이 금주를 달래어 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냥 살아보자고 한다.
- (31) 주감리집 리씨부인이 와서 혼약한 아들 막동이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준다.
- (32) 막동이가 귀국한지 몇일만에 혼인을 지내는데, 막동이가 배워온 서양의 방식을 많이 따른다.
- (33) 서양 각국으로 다니며 혼례의 간편한 것을 보아 기구와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
- (34) 신부와 신랑이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 (35) 막동이와 금주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궁금히 여긴다.
- (36) 현씨부인과 금주가 거처하던 방이 원래 막동이의 방이기에 이 방에 신방을 꾸민다.
- (37) 금주는 사월팔일 밤에 자신이 가져갔던 옥 호로병을 다시 그 있던 자리에 놓아두었다.
- (38) 막동이는 신방에 들어와 옥 호로병이 사월팔일날 없어졌다가 다시 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기이히 여긴다.
- (39) 금주는 신랑이 호로병을 보며 혼잣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뒤 기절한다.
- (40) 막동이가 금주를 안아다 아랫목에 누이고 사지를 주물러 간호하니 생기가 돌아온다.
- (41) 막동이가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월팔일에 강제로 데려와 옥을 보이려했던 처녀임이 확실하다.

- (42) 눈을 뜬 금주가 벽을 향해 돌아 눕는다.
- (43) 막동이는 혼잣말로 하나님 능력을 이루 측량기 어렵다며 금주에게 사과하여 마음을 돌려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 (44) 막동이가 금주에게 자신이 잘못된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진술한다.
- (45) 막동이는 하나님이 이번 혼인이 되게 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꾸짖어 아름다운 경험을 발표토록 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운다.
- (46) 금주는 막동이가 서양 각국의 문명한 풍조를 배워 개과천선한 점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하고 배개를 적신다.
- (47) 그날밤 구경꾼들은 신랑신부의 첫날밤을 밖에서 지켜보다가 말도 안 시키고 갑자기 신부를 안아다가 아랫목에 누이는 것을 의아해한다.
- (48) 구경꾼들은 금주가 팔일밤에 업혀왔던 일과 신랑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회개하는 말을 듣고 의구심을 풀게 된다.
- (49) 사람들은 막동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에 주신랑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류씨신부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감탄한다.
- (50) 남녀노소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막동이와 금주의 사연을 아리따운 일로 삼는다.

이상의 내용을 열 가지 화소로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금주가 구경을 나갔다가 막동이에게 납치되나 겁간을 면하고 옥 호로 병을 되찾아 풀려난다.
- (2) 막동이가 유부녀를 겁탈한 죄로 고소되어 구류된다.
- (3) 건달친구들이 막동이를 피신시켜 함께 구라과 여행을 떠난다.
- (4) 막동이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로마의 교왕이 교만하다가 권세가 실추된 예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통회한다.

- (5) 막동이는 하늘이 주신 몸을 소중히 해야 함을 깨닫고, 사면소식 후 귀국한다.
- (6) 주감리집과 혼약한 금주는 부친 상사 후 주감리집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막동이로부터 곤욕을 당했던 곳을 알게 된다.
- (7) 막동이는 서양의 기독교 결혼문화에 따라 창조주 안에서 신부신랑 중심의 검소한 혼례를 치른다.
- (8) 막동이는 신방에서 금주가 다시 놓아둔 옥호로병을 보고 놀라며, 금주도 신랑을 확인한 뒤 기절한다.
- (9) 막동이가 금주에게 자총지종을 말하고 회개한다.
- (10) 금주는 신랑의 개과천선을 받아들이며, 이를 안 사람들이 미담으로 여긴다.

위의 열 가지 화소를 다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막동이가 금주를 겁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나, 유부녀를 겁간하여 구류되었다가 구라 파로 피신한다.
- 2) 막동이는 이탈리아에서 기독교문명이 남긴 교훈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친다.
- 3) 사면 후 귀국한 막동이는 기독교예식으로 금주와 결혼을 하며 금주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금주는 막동이를 받아들인다.

위의 요약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인공 막동이가 기독교문명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금주와 새롭게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옥호괴연>의 주제를 '막동이와 금주가 만들어가는 개화기의 기독교문화'로 파악할 수 있다.

〈옥호괴연〉의 등장인물은 류통정, 현씨부인, 류금주, 주감리, 리씨부인, 주막동, 건달들이 주류를 이룬다. 류통정은 금주를 데리고 사월팔일 구경을 나올만큼 가정적인 품성을 지닌 인물이다. 현씨부인은 금주를 귀하게 여기는데 현실안주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류금주는 부친과 구경 나갔다가 막동이로부터 화를 당할뻔하다가 놓인 뒤, 기이한 인연으로 막동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변화된 막동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만큼 신축성 있는 마음의 소유자다.

주감리는 명성과 부를 갖춘 사람이며, 아들 막동이를 제대로 키우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막동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곤경에 처했을 때, 이로부터 벗어나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융통성 있는 인물이기도하다. 리씨부인은 막동이의 모친으로 집안의 일들을 차분히 처리해 나가는 인물이다. 주막동은 유부녀를 겁간한 죄로 서에 잡혔다가 피신하여 이탈리아 여행중에 기독교문명이 남긴 역사적 교훈에 감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귀국한다. 자신이 화를 입힐뻔 했던 금주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자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적극적이며 신축성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건달들은 주막동의 친구들이며, 막동이로 하여금 처음에 빛나간 인생을 살도록 자극한 인물들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사월초파일일이 사용되었다. 공간적 배경은 서울 종각일대와 막동이의 방, 경찰서, 이탈리아의 주요 명소다. 이 작품의 제목으로 설정된 '옥호괴연(玉壺奇緣)'은 '옥 호로병에 얽힌 기이한 인연'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줄거리 (3)¹⁹의 위기 속에서 금주는 막동이 방에 놓여있는 옥 호로병을 발견한다. (5)와 (8)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이 호로병은 금주네 집에서 도적맞은 물건이다. 막동이와 그의 친구들이 금주네집에서 도적질도 했던 것이다. 금주가 이 호로병을 가진채로 눈을 가리워

19. 이후의 논의에서 이야기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같은 줄거리 전개 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막동이집 밖에 내보내진다.

막동이가 외국에 나간 사이에 류통정집과 주감리집이 혼약을 했고, 류통정이 세상을 떠나자 주감리는 금주와 현씨부인을 막동이방에 거처하게 한다. 이때 금주는 호로병을 가져와 방에 놓아둔다. 막동이 귀국 후 금주와 혼례를 마친 뒤, 자신의 방에 신방을 꾸몄는데 그 방에 없어졌던 옥 호로병이 다시 놓인 것에 놀란다(38). 막동이가 호로병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놀라는 소리에 금주도 그 얼굴이 전에 자신을 겁탈하려했던 존재임을 확인한 뒤 기절하게 된다(39).

이렇듯 옥 호로병은 막동의 도적질을 통해 금주의 집에서 막동의 집으로, 금주를 통해 막동의 집에서 금주의 집으로, 이번에는 금주를 통해 금주의 집에서 막동의 집으로 이동하며 금주와 막동이의 행적과 기이한 인연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을 '옥호괴연'이라 칭한 것은 문학적 상징의 함축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옥호괴연>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지닌 아름다움도 독특하다. 주인공 막동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피신하여 구라파행 운선을 탄 후 (15)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표현의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

갑관우에 나가안저 초연히바라보니 안력이궁진호야 동서를 분간키 어려
온더 넓은물결 긴하날이 한빛으로 푸르렀는디 비머리증기통에서 먹송이 굵
치 검은연기가 덩이〃〃쏘다져나오며 통비단을 펼쳐노은 듯이 머리위로 퍼
지더니 구름과혼합호야 무심히 써있더라²⁰

한쪽의 풍경화가 연상되는 묘사다. '초연히바라' 본다는 것은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뜻이다.

20. <옥호괴연>, 25면.

일제 치하의 범죄한 땅 서울 종로라는 공간을 벗어나 조선땅 밖의 또다른 나라로 나아가는 배 위에서 주인공은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안력이 궁진하여 동서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은 드넓은 바다의 풍광을 나타낸다.

'넓은 물결'과 '긴 하늘'이 '한 빛으로 푸르렀다'는 것은 아득한 '수평선'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인데,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다. 배머리 증기통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먹송이' 같다고 직유법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나, 그 연기가 머리 위로 퍼지는 모습을 '통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는 직유가 일품이다. 그 연기가 구름과 만나 '무심히 떠있더라'는 의인법의 구사는 주인공의 심경을 잘 빗대고 있는 표현이기도하다.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본 듯 태산을 넘어서 평디를림흔 듯 마암의 반갑고 시원하함이 한량아업는중 부모뵈압고 십은 생각아 시각을 참기어려워 즉시 건달들에게 가서를뵈이고 길러써나 고국으로 돌아오더라²¹

주인공 막동이가 나라의 사면으로 죄인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기에 앞서 느끼는 기쁨을 직유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본듯하다거나 태산을 넘어 평지에 임한듯하다는 직유적 표현에서 '구름'과 '태산'은 앞을 가리는 장애물이다. '푸른 하늘'과 '평지'는 소망하는 바며, 목적하는 곳이다. 막동이의 소망은 죄인된 몸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목적지는 당연히 고국이었을 것이다.

이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성취를 목전에 둔 상태의 반가움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막동이가 출국하면서 느

21. <옥호괴연>, 37면.

끼는 각주 16)의 비애감과 귀국하기에 앞서 느끼는 각주 17)의 기쁜 마음이 대조적이다. 두 예문은 주인공의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돋보이는 수사법으로 표현하여 문장의 미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이어서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옥호괴연>이 사건 전개 of 역동성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등장인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요소로서 기독교문화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서구 기독교문명의 교훈

막동이는 줄거리 (18)에서처럼 교만히 행하던 교왕이 (19)에서와 같이 권세가 추락하는 기독교문명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게 된다.

숭흐다 로마교왕이 높은 왕위에 처흐야 능히 옛것을 곳치며 시것을취흐고 리훈일을 경영흐며 폐단을 제각흐지못흐고 다만 목전에 부귀만 욱심니여 구 츠흐고 인순흐야 스스로 이세계의 교왕은 가히 만디 상전홀줄만턱이어 교만 흐고 음난흔 것을 못홀바가업시흐야 귀에는 풍류소리가 젓저잇고 눈에눈금 쥬슈능라가 취히잇고 몸은 고루거각에 드러이서 세상의 변희가는 것과 빅성의 정티를몰오며 조괴디위를 감히 누가 움작이리오흐엿더니²²

22. <옥호괴연>, 29~30면.

막동이가 배우는 로마교왕의 실패요인으로는 옛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일의 미숙함, 이로인 일을 하면서 폐단은 버려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점, 부귀에 대한 욕심과 교만과 음란으로 세상의 변화와 백성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다. 교왕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자고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필경은 교왕의 디위로하야금 싸에셔러지게 하였도다 이일로 밀어보건디 비록 대왕의존귀로도 그권세를 자뢰하고 마음을 교만히하야 스스로 호을로 짓거오려하디는 마참나 여러빅성에게 버린바1되야 비참한날을 보거던 호을올며 범상한사롬이야 두 번 말홀바1잇스리오 뜻올상하고 법도틀억의다가 금법을범하고 형벌을당하야 제몸을 결단니고 제집을 망하는일이 모도다 처음에 생각을 호변잘못가진일노 시작하나니 슬푸다 니가 용렬한조격으로 조상의 음덕을 입어 가세가 부요하거날 능히 부친의뜻을 밋자와 겸손한덕을 힘쓰지못하고 술을도와하며 식을탐하야 목전의 것거음만 취하노라고 남을겁욕하다가 스스로 죄슈가되얏더니 근근히 벽을헐고 도망하야 부모슬하를 멀리셔나 타국에 망명을하얏스니 지난일을 생각건디 엇지 인류라하리오 물이 임의홀너갓스니 뉘웃친들 엇지밋칠손가 오작 남어지물결을 멈을너 더러운 씨를 목욕하고 조금이후로 잘못한일을 곳치어 허물을 만분지일이라도 면하리라 막동이가 이와갓치 로마력스를드려 스스로조기를 꾸짖더니 취하얏던 술기운이 사라지고 심계가 맑아지니 본래품부한 텃진이 자연드러나 이왕잘못한일을 후회하야 가삼이 메여질듯한 탄식을 마지못하엿더라²⁾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교만하면 백성에게 버린 바 된

2). <옥호괴연>, 30~31면.

다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막동이는 뜻과 법도를 벗어나면 범법과 형벌과 패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는 처음 생각을 한번 잘못 갖는데서 비롯됨을 깨닫게 된다. 막동이는 자신의 집이 부요함에도 부친의 뜻대로 '겸손한 덕'을 힘쓰지 못하고 주색잡기와 겁탈로 죄수가 되었다가 피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엇지 인류라호리오'라는 탄식은 막동이 자신의 과거 죄에 대한 자탄이다. 뉘우쳐도 지난 일은 소용이 없을 것이나 과거의 '더러운 때'를 묵욕하고 잘못된 일은 고치어 허물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하는 결단이 나타나고 있다. '물이 이미 흘러 갔으니'나 '나머지 물결을 머물러'라는 표현은 사물의 현상을 끌어다 존재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잘못된 과거를, 후자는 돌이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현실을 보여준다.

'로마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문명의 흥망사를 통해 막동은 값진 교훈을 얻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심계가 맑아지면서 '본래 품부한 천진' 즉 창조주가 원래 부여한 맑은 심성이 드러나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탄식하게 된다. '후회하여 가슴이 메어질듯한 탄식'이란 표현은 막동이가 진심어린 회개를 통해 새사람되는 거듭남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혼례에 수용된 기독교문화

주인공 막동이는 서양 각국을 여행하며 생활 예식의 간편한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된다. 막동은 자신의 결혼예식 순서에 번거로운 기구와 절차는 과감히 생략한다(33).

막동이가 이전안목이안이라 서양각국으로 단이며 혼례에 간편한것을보아

얼마쯤 혼인설비중 구일습관의 번거움을 불가한줄로 씨다라셔 한님이니 후
비이니 지비이니 혼는 절츠를 모도다감싱하고 간단하게 신부 신랑이 나란이
서 "하날의 밍서를 하였는디"²⁴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서서 혼례를 진행한다는 것은 두 존재의 인격과
존엄성이 동등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기독교 생활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계 맹세했다는 것은 결혼이 창조주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
하고 신성한 것임을 드러낸다. 기독교 구약성경에서 창조주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주고 있다.

기독교에서의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것이며,
사람이 이를 나눌 수 없다고 강조된다.²⁵ 즉 창조주와 두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 막동이와 신부 금주가
하늘계 이 사실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혼례에 수용된 기독교 생활 문
화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주와의 대화 가운데
막동이가 하는 말 속에도 기독교 결혼관이 잘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번혼인을 되도록 지시하시 나로하야곰 황 "망조케하야 텃별
을더욱 두렵게 녀이도록 하심이오"²⁶

막동이는 자신의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²⁷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말
하고 있다. 이 결혼은 잘 모르는 이웃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담겨 있는 것이다. 막동이가 처음에 금주에게 젊은이의

24. <옥호괴연>, 46면.

25. 신약성경 마태복음 19:46.

26. <옥호괴연>, 50면.

27.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정열과 치기로 접근하여 겁간하려 한데는 비인격적인 요소와 범죄적 실수까지 동원되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그 대상이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천벌 즉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막동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개인의 삶과 결혼과 가정의 참된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창조주와 인간관계 속의 기독교문화

<옥호괴연>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점으로 한 두 주인공 막동이와 금주의 사유(思惟)와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혼례를 마친 뒤 신방에서 신랑 막동이가 자신을 겁탈하려했던 사람임을 확인한 금주는 질겁을 하여 돌아눕는다(42).

이씨에 금주가 눈을써 막동을 쳐다보더니 질괴를하야 눈을돌오감으며 벽을 향하고 돌아눕는양을보고 다시싱각홀스록 기가막힌지라 혼즈말로

허〃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이로척량키어렵도다 니가 무지몰각하야 범죄를하얏더니 그벌을주시노라고 그녀즈와 혼인을 지내게인도호스 오날밤에 이광경을당하도록 호심이로다 니가 아모죠훈복〃사과를하야 회심을하도록 하리라

호고 조쵸지종을 일호은취업시 조기의 잘못호형실을 진술(陳述)하더라²⁸

막동이는 금주와 얽힌 필연적인 사건을 겪으며, 이 기이한 인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 능력은 이루 측량하기 어

28. <옥호괴연>, 49면.

럽다고 고백한다. 겁탈하려했던 금주와 혼인을 하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깨달으며, 그녀에게 잘못된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이다. 지나온 사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주인공의 성격묘사는 기독교문화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허니 죄가 열번죽어도 썩사람이오 본디 학문도업고 지식도업서 무뢰비와 작궤을 하야 괴악헌행위를 만히하다가 필경은 망명죄인이되야 서양으로 건너가 문명헌 남의나라 풍속을보고 나의 전일소위를 생각하니 참아 이세상에 거두를 하고 살아잇기 붓그러오나 고당에 빅발쌍친(高堂에白髮雙親)이신 즉 인조도리에 참아못하야 근〃히살아있더니 턴은이 감사하사 소를 너리심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이왕 지은죄는 홀일업거니와 이다음부터는 기과천선하야 부모의 근심을 끼치지말며 타인의비소를 면홀가하얏더니 … 부인으로 하야곰 나의죄를 꾸지져 아롭다운 절형을 발표토록 하심이로다
하며 소리가 나는지 시닷지못하고 늦겨우는지라²⁹

막동이는 '열번 죽어도 썩 사람'이라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 학문과 지식이 없이 건달들과 나쁜 일을 일삼다가 망명해야 하는 죄인의 신세가 되었었지만, 문명한 나라를 보며 회개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문명한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문명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교훈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한다. 나라의 사면을 받아 귀국하게 된 막동은 '개과천선' 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비웃음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다. '개과천선'의 계기는 서

29. <옥호기연>, 49~50면.

구 기독교문명 흥망사의 교훈이며, '개과천선'의 결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격으로 변화된 것이다.

주인공 막동이가 반 개화적 인물로서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난 다음 급진적으로 개화인물로 전환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이탈리아 여행 이전의 행동과는 부자연스러운³⁰⁾ 것이 아닌 필연적 귀결이다. 기독교적 '개과천선'이라는 전인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막동이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면서 민본사상, 개혁사상, 민주정치, 허례허식의 배척 등³¹⁾을 배우는 가운데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막동이의 '죄'와 금주의 '절행'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막동이는 소리는 줄도 모르고 흐느껴 울게 된다. 이 울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회개가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올바른 생활로 나아간다는 기존의 '개과천선(改過遷善)'과 다른 점은 창조주 앞에서의 자아발견과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개는 금주가 막동이에 대한 선입감을 바꾸어놓는 계기가 된다.

금주가 벽을안고누어 막동의흐느낀말을 차례로뚫다가
금기 그 우는양을보니 무암이 조연 감동하야이리 더리 심각을하야보니

알슈업는것은 사롬의 일이야 이왕 그 흉악호힉실을 흐던터에
지금더러케 심각이들줄 엇지알아.....

너가 먼져번에는 더사롬의 불법힉위를 당하얏스닛가 죽기로결심하고 엇 의씨지 그말을듣지 안이하얏거니와 이번에 이사롬을 되 만나기가 이상호 일 인중 상당호 레법을 힉쳐안인바가 안이니.....

안이 더사롬이 본러 정직지못호 힉실로 지금 나를속이노라고 감언리설를

30. 황정현, 앞의 책, 같은 쪽.

31. 황정현, 위의 책, 같은 쪽.

더모양으로 하며 가장 뉘우치는 체하고 우는 모양이나 흐지안이흐나...

이노 아마도 나의 험이흔 소견으로 남을넘모 용납지못혹이지 서양각국에
그만치 유람하야 문명헌풍조를 마시고 돌아온터에 즈기 사름이 지식사료야
더처럼 설마홀나구...

니몸이 녀즈로나서 그위 더사름의 례폐를 맞은터에 넘오 고집을흐면 위선
우리홀노계신 어머니가삼에 못을박을것시오 쏘는 장부의 기과천선호는 전
당을 굶트드릴지니.....

하며 산연흔눈물이 배기적시더라³²

금주는 막동이의 과거지사에 대한 회개의 말을 차례로 들으며 우는 모습까지 보자 감동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는 감언이설과 거짓행위로 자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가 자신의 좁은 생각을 돌이킨다. 금주는 막동이가 서양 각국의 문명한 풍조를 접한 점을 신뢰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받아들이며 눈물로 배개를 적신다. 금주의 사려깊은 이해는 이 작품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게 한다.

그제야 금주의 팔일밤에 업혀왔던일과 막동의회기흥을 자세히알고 제각기혜여져 친분잇는디로 만나는사름에게

여보나는 나이몇살못되었셔도 신방을직히다가 그런별일은 처음보앗소 더
쵸우물 꿀 주감리집신랑의 일갓흔 것은 하날아리에 아마 처엄될일터이야³³

신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금주의 사월팔일 밤 사건과 막동이가 회개한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체험이 처음임을 고백한다. 고소설 작품에서 악인이 의인으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막동이의 회개와 변화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

32. <옥호괴연>, 49~51면.

33. <옥호괴연>, 52~53면.

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늘 아래 처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요소다.

이세상 죄지은사람이 몇천 몇만명인지 몰으시마는 주신랑처럼 회기하는 사람이 몇몇이나되며 횡익당하는사람이 역시 몇천 몇만명인지 몰으시마는 류씨신부처럼 면하는 사람이 몇 "이나되겠소 그신랑 그신부의일은 나만 처엄볼뿐안이라 아마 옛 로인들도 못본일이오 못드른 일 " 터이야

이모양으로 그날신방 직히던사람들이 전파를하야 원근간 남녀노소를 물론하고주감리의아달 목동이 류통정의딸 금주의 리약이로 한가지 아리다운 일을삼더라³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주신랑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나 류씨신부처럼 용서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며, 그 회귀성을 감탄하고 있다. 주신랑과 류씨신부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 사이에 회개와 용서라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막동기와 금주 이야기를 하나의 아름다운 일로 삼아 널리 전하게 된다. 주인공들의 삶에 기독교세계관이 들어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며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이루게 되고, 이 이야기가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된다.

5. 결론

〈옥호괴연〉(玉壺奇緣)은 주감리의 아들 막동기와 류통정의 딸 금주가 혼인을 하기까지 겪게 되는 기이한 인연을 풀어놓은 개화기의 신소설이다. 두 주인공의 기이한 만남과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전개되는 행간에

34. 〈옥호괴연〉, 53면.

는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세계관이 스며 있다.

〈옥호괴연〉과 같이 개화기의 소설로서 기독교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들에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김필수의 〈경세중〉, 이상춘의 〈박연폭포〉, 이상협의 〈눈물〉, 최병헌의 〈성산명경〉, 배위량부인의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박연폭포〉는 〈옥호괴연〉과 같이 남녀 주인공이 겪게 되는 갈등과 회개와 용서의 주제적 구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옥호괴연〉은 작품 초반부에서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이 사월초파일의 등불놀이 공간이며, 작품 말미에서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행복한 결말의 중심에 기독교문화관이 들어있다.

이는 〈옥호괴연〉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구의 기독교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시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을 함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작품의 특징은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개화기문학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하다.

〈옥호괴연〉의 문장 형태는 고소설의 양식을 세련되게 사용하면서도, 띄어쓰기와 대화체 문장의 구사, 기독교문화에 기초한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전형적인 개화기소설임을 알 수 있다.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는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 기독교문명의 교훈, 혼례에 수용된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결혼문화, 창조주 안에서 주인공 막동이와 금주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 속의 대화와 사유(思惟)를 매개로 형성되는 기독교문화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주인공 막동이의 부정적인 모습과 변화의 과정과 긍정적으로 거듭난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낸 것은 소설의 리얼리티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지니는 특징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게 된 근대적 정치담론 혹은 서구 문명에 대한 충격이 소재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도 한 인물의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화기 작품들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관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옥호괴연〉은 자칫 소홀히 치부되고 넘어갈 수 있는 한 개인의 실수에 관심을 두고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회개 및 행복한 결말의 획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전문학의 주인공에는 무흠한 영웅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옥호괴연〉의 막동이는 흠많은 죄인이다. 그가 회개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기독교적 인간실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옥호괴연〉은 개화기의 소설에 서구의 기독교문화가 수용 통합되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들의 만남과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창출하였으며, 그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활자본 인쇄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므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적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개화기의 신소설인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에 대한 연구가 한국 문학의 전환기인 개화기문학의 문학사적 의미를 보강함에 있어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21세기의 바람직한 기독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독교문학 연구와 창작에도 동기부여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옥호기연), 普及書, 191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 開化期文學 叢書 『新小説·翻譯(譯)小説』 10, 亞細亞文化社, 1978.
- 權純肯, 『活字本 古小説의 편목과 지향』, 보고서, 2000.
- 김경완, 『韓國小説의 基督教 受容과 文學의 表現』, 태학사, 2000.
- _____, 『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도서출판 月印, 2000.
- 김동욱·이재선 編, 『韓國小説史』, (주) 現代文學, 1992(2).
- 김명순, 『한국고전 산문교육의 문제점』, 『한남교육연구』 제4집, 한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6. 277면.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
-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2).
- 김태준 저·박희병 교주, 『중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소재영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소재영·김경완 엮음, 『개화기 소설』, 한국 기독교문학 총서 1,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기독교와 문화』, 도서출판 풍만, 1987.
- 尹明求, 『민준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97~798면.
- 조동일, 『新小説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7).
- 崔雲植, 『옥호기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8~99면.
- 崔泰榮, 『基督教의 神名考』,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2~3면.
- 韓國經濟史學會 編,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
- 황정현, 『新小説 研究』, 집문당, 1997.

김경완

숭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졸업(문학박사)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숭실대 기독교학과 강사

한국기독교문학평론가협회 감사

“기독교문학과 삶의 변화”(이레서원, 2000)

“한국 소설의 기독교수용과 문학적 표현”(태학사, 2000)

“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월인, 2000)